세계관
발표논문 03

요약문

Ai 시대의 선교적 도전

정상돈 장신대 대학원생

Ⅰ. 서론

AI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면서 세상의 산업구조가 점점 변하고 있다. 현재 'ChatGPT' 라는 언어 기반 시스템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면서 세상은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기존의 있는 직업과 산업이 없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저 기술의 발전이기에 인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chat gpt' 의 능력은 기존의 기계언어와 달리 자연언어를 변환시키는 능력으로써 이전과 인간의 고유적으로 할 수 있는 언어 작업수행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인간의 전반적 산업교육 시스템이 앞으로는 이 기술을 통하여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 기술의 발전은 대부분 인간들의 노동력 즉 체력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대신하는 기술들이 등장하기에 큰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지만 'chat gpt'의 등장으로 인하여 논리적인 사고 시스템의 발전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논리체계와 학습능력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이로 인한 변화를 여러 가지로 추측하며 앞으로 없어질 직업군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해 하고 있다. [1)]

현재 딥러닝 AI 와 메타세계의 확장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산업의분기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의 도전이 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만 해도 이러한 기술발전에 따라오지 못하는 소외계층들이 있다. 단순하게 매장내 '키오스크' 주문만 하더라도 따라가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있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인터넷 사용과 스마트폰의 사용 또한 어려워하는 계층들이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단순하게 기술발전으로 산업의구조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구조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기술발전의 문제라는 것이다.

특별히 펜더믹 코로나 19 상황을 맞이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회 구조가 한번 바뀌는 경험을 했다. 교회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더 많이 사용해야하는 것을 경험했으며 구체적으로 비대면의 활성화 현장과 또한 메타세계의 기술 확장과 동시에 세계는 격변의 모습을 경험하고 난 뒤에 새로운

1) 『MIT technology Review』 Mar 25, 2023 David Rotman <ChatGPT is about to revolutionize the economy. We need to decide What That looks like.>

방향성을 찾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교회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 따라가는 교회와 따라가지 못하는 교회 또한 현실적으로 나온 것이 사실이다. 점점 사회적인 약자들이 이러한 기술 발전에 의하여 나온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 선교적 관점에서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어떤 도전을 불러일으키는가? 그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선교적 도전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우리들의 '선교적 응답' 은 무엇인가?

Ⅱ. 본론

1, AI 4차 산업시대 'ChatGPT'

애초에 인공지능 개념 차체는 50-60년대에도 있었으나 본격적인 기술의 발전이 상용화 된 것은 비교적 최신이다. 현재 인공지능기술이 워낙 빠른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 5월이라는 시간에 한정하여 'ChatGPT'의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점을 우선적으로 이야기 한다.

현재 ChatGPT는 어느 업계을 가더라도 가장 유용한 기술이기에 각각의 분야에서 연구가 되고 있다. 이 기술은 가장 최신 언어구조기반 인공지능 모델로써 작문이나 번역, 요약 등의 기능이 탁월하고 글쓰기 능력으로만 특화 했을 때 엄청난 수준을 보인다.

다만 이런 언어 모델은 기존의 빅데이터와 파라메터(매게변수)를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달려 있다. 또한 파라메터의 수준을 얼마나 조정해주는지에 달려 있다라는 조건이 있으며, 언어 모델의 성능은 대체적으로 파라메터 규모에 달려 있다고 한다. 최신 파라메터가 많으면 성능이 좋다라는것이고 이러한 매커니즘을 알아가면 혹여 'chat gpt'의 잘못된 대답이 왜 나오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계점도 지적된다.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학업과정을 통해 학습을 하지만 기계는 한정되어 있는 정보 내에서만 그러한 학습이 가능하다. 즉 사람이 정제한 데이터를 ai가 학습하여 데이터가 맞는지 틀린지 구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처리량은 워낙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운용비용도 이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를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전의 버전에서 그 데이터의 습득과정은 'gpt1'은 책의 내용에서 학습하였고 'gpt2'에서는 '레딧'이라는 인터넷의 공간에서 정보량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발전했다 또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gpt3'부터는 위키,책,학술저널 ,레딧 다양한 웹사이트의 모든 자료를 통해 학습해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질문에 따라서 지적 수준에 맞춰 대답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하고 있기에 즉 정확한 질문과 세부적인 제한으로 'ChatGPT'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 국내 기업(네이버,카카오)들도 3버전과 3.5 버전을 기반으로 자체적인 솔루션을 도입해서 개발하는 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기술로 남아 있다.

'ChatGPT' 로 할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질문하기' ,'코딩하기' , '언어학습', '계산기' 능력으로 네 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특별히 오류가 발생한 코딩 계산식을 다시금 설계한다던지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어 문학 작품이라든지 타 언어의 작품을 함께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논리적 문제에 대하여 반응을 살펴 볼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또한 언어적인 능력과 수리적인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직도 한계점은 분명하다 가짜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가지고 있고, 질문이 정확해야만 더 좋은 답변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ChatGPT 4' 의 가장 큰 기술의 혁신은 이미 현실화되어 잇는 기술 속에서 ChatGPT 4는 LLM (Large Language Model)기반 서비스를 통하여 현재는 작문이나 영상이나 그림 만들어 준다던지 설계를 해줄 수 있다.

계속되는 발전 속에서 이러한 기술의 혁신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많은 도전과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이다.

2. '하나님의 선교와 '선교적 교회'로 바라보는 ChatGPT' (연구 방법)

이러한 기술 발전에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과 그리고 '선교적 교회'라는 방법론으로 'ChatGPT'라는 기술을 연구해보자 한다.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기존의 선교적 방법론에서 선교의 주체이심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우리들의 응답을 이야기 한다. 또한 이에 따른 교회론으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교회 자체의 성장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개념을 말한다. 끊임없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또한 응답해야 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역할이다.

'하나님의 선교' 라는 개념의 탄생은 이렇다.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vigin)이 자신의 선교를 마치고 고국 영국으로 돌아와서 보니 너무나 이전과 달리 망가져 있는 영국의 상황을 보면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선교의 현장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라는 개념을 먼저 주장하였다. 이후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유럽교회의 현실을 조망하는 신학적인 툴로 사용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북미교회의 사회적 교회와 변화를 분석하는 틀로 사용되다가 교회성장만을 요구하던 상황속에서 대릴 구더(Darrel Guder)가 비판적인 고찰로써 나온 것이 단어가 바로 '선교적교회(Missional Church)' 이다.

즉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써 하나님의 선교의 참여자로 교회가 존재해야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품으신 정신을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들도 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선교적 교회론은 그저 '교회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세우기 운동'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2)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개념과 '선교적 교회'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메타세계'에서도 확장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현재 '메타세계'라는 공간의 확장을 경험하고 살고 있으며 산업 전반적으로 변화를 격고 있다. 또한 코로나라는 펜더믹 상황에서 많은 변화를 맞이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선교적 역할과 방법론에 대한 요청을 부여받은 상황이다.

즉 메타세계 안에서의 '선교적 교회론'을 말하자면 그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 세우기 운동'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AI 시대의 선교적 도전이라는 것이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리적인 시공간을 초월한 상황속에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운동을 해야하는 것이고 그것을 결국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달려 있다' 라는 것이다.

ChatGPT라는 프로그램 또한 선교적교회의 방법론으로 해석하자면 프로메타와 정보의 제공의 입장에 있어서 제한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얼마 올바른가에 한하여 한계성을 지니고 있고 또한 그 기술을 올바로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야기 할수 있을 것이다.

---

2) 김도일 (2021). "선교적교회론 교육과 기독교 교육적 함의" 『선교와 신학 54』 139-174

3, AI시대와 'ChatGPT'라는 기술의 선교적 도전 (연구 결과 및 해석)

현재 가상공간이라고 물리는 메타버스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각종 플랫폼의 역할로 인하여 사람들의 연결 고리를 더욱 증폭시켜 만남의 자리와 다양한 비즈니스 사교의 활동도 하지만 그에 따른 비윤리적인 범죄 행태도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의 '2021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2020년 적발된 디지털성범죄 사범은 1만6866명으로, 1년전 1만4380만명보다 약 17% 증가했다. 메타버스에서 이뤄지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직도 구체화가 없다는 점에서 이는 큰 문제로 지적된다.[3] 점점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공간에서의 문제 또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1) 알고리즘은 과연 공정한가?

플래폼 사회에서는 알고리즘의 편향적으로 기업의 이윤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미 설계를 하고 있다. 특히 알고리듬시스템은 이제 삶의 결정적인 부분에 지배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알고리듬의 결정이 나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혹은 이 사회를 불평등으로 더 심화하거나 취약계층의 삶을 힘들게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전직 월가의 애널리스트였던 캐시 오닐은 2007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데이터 과학자로서는 매우 드물게 내부고발자가 되어 이 알고리듬이 위험하고 이것을 제어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했다. 현재 점점 전통적으로 사람들의 판단에 기대왔던 의사결정들이 알고리듬에 의지하면서 '취약성'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판사들의 판결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오히려 인공지능이 판결이 낫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과연 인공지능은 더 공정할 수 있을 것인가? [4]

더더욱 편향적으로 양극화 현상으로 이끌어가는 기업의 행태들이 몇 번 지적되어 왔으며 우리 민주사회로써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지적이 몇 번 일어났다. 대기업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정보의 독점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술자들은 이러한 윤리적인 부분을 기술적으로 보완한다는 몇몇의 이야기가 있지만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2) AI는 과연 윤리적일수 있는가?

인간인식에 대한 이해정도와 별개로, AI는 딥 러닝을 통해 지능수준이 급격히 높아졌다. 일터에서 이미 인간의 인지적 과제는 AI의 도움과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윤리적 판단도 AI의

3) 검찰청 『2021 검찰연감』 p.374

4) 이재열 외(2021), 『플랫폼 사회가 온다』 한울(한울아카데미) p.163-184

도움이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데이터 플랫폼에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논쟁, 철학, 윤리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어 있다고 할 때, 인간은 인지적 과제 뿐만 아니라, 윤리적 과제도 AI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AI는 윤리적 서비스플랫폼으로서 정책과 생활에 스며들 수 있다. 윤리적 AI를 구현하기 위해 해석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AI의 예측력을 떨어뜨릴 위험을 높인다. 윤리적 AI구축은 AI의 해석가능성과 일관되지만, 예측성능과는 상충될 가능성이 있고, 예측성능에서 재현율(실제 true인 것 중에서 모델이 true라고 예측하는 비율)보다 정밀성 확보가 윤리적 AI에게 더 중요하다. 인간의 윤리는 문화적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형성된 판단기준으로 유동적인 성격을 내포한다. 그러나 윤리는 한번 고착화되면 다른 윤리적 기준을 납득시키기 어려워서 가역적이긴 힘들다. 따라서 윤리의식은 유동적이기보다 가소적(plastic)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윤리적 판단이 가소적이라면, AI는 인간의 윤리성을 학습하기 훨씬 수월하다. AI는 지능은 아니지만 지능적이다. 인간의 감정이입적 해석방식을 학습한 AI는 스스로의 결정을 합리화할 때 인간을 윤리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AI를 윤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해석가능성을 높이고 재현율보다 정밀성에 가중치를 줄수록, AI가 인간의 윤리적 판단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윤리적으로 납득시킬 가능성은 높아진다. 우리는 프라이버시 침해요구에 '동의'를 누르면서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5)]

3) 윤리적으로 'ChatGPT'는 보완이 가능한가?

현재 'ChatGPT 4' 가 나왔다. 아직은 민간인들에게 공개되어있지는 않지만 이 프로그램 내부속에서 계속해서 프로그램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보완이 가능하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인간의 윤리적인 기준이 모두 같지 않고 인간마다 각자의 윤리적 기준이 있다. 개개인의 윤리가 종합되어 사회적인 윤리를 형성하는데 과연 우리는 이러한 윤리적 기준을 ChatGPT가 어느정도 기준을 잡을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수 있다.

AI도 잘못된 정보나 기준에 의해서 어느정도 한계를 가졌다는 것은 당연한 한계치라고 생각한다. 그 한계치는 수용 가능한 한계치라고 볼 수 있다. 이제는 AI도 하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관론에 전적으로 동의가 되지는 않지만, 폭주할 수 있는 상황에 동의가 된다.

4) ChatGPT의 기술은 선교에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미칠것인가?

이 기술을 긍정적으로 보자면 언어기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선교현장에서의 언어로 소통이

5) 위의 책 p.159

힘든 상황속에서 다양한 언어 번역의 부분이라든지 소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주제 메시지의 기존에 어려웠던 외국어 설교문 작성등은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 예측이 된다.

많은 현장에서 외국어의 습득의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선교현장에서 보이고 있는데 100% 해소 하지는 않지만 일정부분에서 이 기술은 외국어에 대한 진입장벽과 타 문화권에 대한 소통의 영역에 있어서 매우 주요한 기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우려가 되는 점은 결국 아무리 기술일 발전하더라도 선교의 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것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성이다. 이 기술만으로 선교현장에 언어적인 측면과 기술 학습적인 측면에서 분명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선교 전체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경제학자 케인스는 1930년 인간의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져올 자본의 축적과 생산력 제고는 인류의 경제적 능력을 8배 이상 높여서 2030년이 되면 하루 노동시간은 평균 3시간, 주당 노동시간은 최고 15시간이 될 것이다.” 이 대담한 예언은 『우리 후손의 경제적 가능성』 이라는 미래 인류의 경제를 예측한 짧은 에세이에 실린 내용이다. 케인스가 말한 하루 3시간 노동의 의미는 하루에 3시간만 일하더라도 충분히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케인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일반시민들이 직면할 주된 문제는 과학기술 발전이 제공한 여가를 활용하여 긴급한 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 어떻게 지혜롭고 유쾌하고 풍족한 삶을 누릴 것인가이다.” 요컨대 일보다 삶이 중요해지는 세상이 되리라는 것이다.[6)]

인류가 10년 뒤 맞이할 세상은 케인스가 예측한 세상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케인스 예측대로 인류의 경제적 능력은 늘었는데 사람들은 하루 3시간, 일주일 15시간의 일을 하고 경제적 걱정 없이 높은 삶의 질을 즐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 전환의 선두에 선 인간들이 과연 ‘ChatGPT’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섬겨야 할것인가?

데이비드 보쉬가 말하는 ‘변화하고 있는 선교’ 현장 상황에서 필자는 선교적교회의 지역사회의 섬김의 방법론으로 ChatGPT가 들어올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필자는 ‘선교적교회’을 통한 교회의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의 방법론을 제언하고자 한다.

---

6) 위의책 p,187

1. 선교적교회의 방법론 (섬김의 방법론)

1) 정보의 취약 자들에게

대한민국사회 속에서도 정보의 소외계층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취약계층들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약자들에게 선교적 교회로써 섬김으로 그들과 함께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을 함께 공유하며 섬겨야 할 점을 우선으로 둔다.

현재 필자가 섬기고 있는 '양평교동교회' 이미 노령화가 시작된 교회이다. 과거 코로나시절을 맞이하여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려고 했어도 쉽지 않은 교회였고 또한 간단한 유튜브 접속이나 혹은 현재 하이브리드 처치를 지향하여 움직임이 있어도 네이버 밴드 가입 혹은 카카오톡 단톡방의 활용또한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이 매우 많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 정보측면의 약자들에게 'ChatGPT'의 활용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매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런 기술을 통하여서 선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섬길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할수 있는 실천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상황속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약자 계층이 구성되는데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과연 ChatGPT의 활성화가 과연 얼마나 잘 이뤄지겠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식적인 양극화 현상은 더욱 일어날 것이고 지식적 불균형과 불평등의구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선교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그저 이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섬기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질문을 하는 신앙교육

ChatGPT 의 기술로 인하여 우선적으로 도전적 교육 과제는 '올바른 질문' 이다. 그러나 한국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교육은 질문위주의 교육이 아니라는 것이 큰 단점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기독교교육이 이제는 답을 알려주는 신앙교육에서 이제는 바른 질문을

할수 있게금 가르치는 신앙교육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우리 교회의 문화는 질문을 하기보다 그저 알려주는 교리와 지식에 한하여 답습하고 그대로 따른것에 신앙의 교육이 국한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보다 바른 질문을 하는 신앙교육을 해야할 것이다. 즉 얼마나 올바른 질문을 하는 신앙의 교육 방법론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외우냐,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느냐가 평가의 기준이였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ChatGPT의 기술은 얼마만큼 올바른 질문을 할수 있느냐가 경쟁력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것이다.

3) '지역사회개발 선교'를 근거하여 '메타사회개발 선교'

선교학에서 이미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주제가 있는것처럼 인공지능 세계 내부 안에서도 이제는 선교신학적 관점으로 우리가 그 안에 신앙적인 좋은 주제를 담은 지식이라 던지 새로운영역에 있어서 개발을 해야 하는 시각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지역사회개발 선교는 단순히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한노력이 아닌 총체적인 선교 라는신학적 근거 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7] 지역사회 개발 선교라는 것은 저개발국 혹은 개발도상국을 통하여 빈곤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연히 누려야할 최소한의 인간으로써의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개발 선교' 이다.

이러한 개념을 더욱 확장하여서 수많은 정보로 인하여 일그러져 있는 메테세계 내부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려야할 바른 풍토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현재 메타세계 내부에서 너무나 많은 종교적인 혼합이 이뤄지고 있고 , 또한 문화적인 충돌 또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어 지고 있는 현장이다. 이미 메타세계 내부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속에서 리처드 리버가 주장하는 '문화위의 그리스도' 와 '변혁의 그리스도라'는 문화관을 사용하여 'ChatGPT' 가 학습 하고있는 메타공간 또한 우리가 선교현장으로 바라보며 개발을 해야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새롭게 지녀야할 선교적인 도전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

7) 박보경(2016) 『통전적 복음주의선교학』 , 케노시스 p.169

Ⅳ. 나가는말

변화 하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써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복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목적과 또한 시대적인 고찰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사람들이 가지고 고통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다. 아직도 인류 사회 속에서 '빈곤'과 '결핍' 고통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며 복음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내는지를 그 방법론을 계속해서 선교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특별히 ChatGPT라는 인공지능 기술 과 메타버스 또 AI가 선교현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은 미래적인 시각을 지닐 수밖에 없지만 필자의 신앙의 근거로 말하자면 분명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복음의 힘은 세상을 향해 여전히 굳건할 것이라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의 변혁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이며 앞으로 이러한 기술을 맞이하여 보다 건전한 신학에 근거하여 앞으로의 기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길 희망해 본다.

또한 AI가 사회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칠 것이 앞으로 시대에 예상되는 만큼 기독교도 올바른 사용을 위해 신학적 분석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이재열 외(2021), 『플랫폼 사회가 온다』 한울(한울아카데미)

박보경 (2016) 『통전적 복음주의선교학』 , 케노시스

김도일 (2021). "선교적교회론 교육과 기독교 교육적 함의" 『선교와 신학 54 』

David Rotman 『MIT technology Review』 Mar 25, 2023 <ChatGPT is about to revolutionize the economy. We need to decide What That looks like.>